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2주일



혼인 잔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는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마음에 드는 존재’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전합니다. 이는 주님 세례 축일에 들었던 복음 말씀에 담겨있듯이, ‘사랑하는’(루카 3,22) 이름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사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신랑이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신랑으로서 사랑하는 이가 되어주십니다.

이는 오늘 복음에서 전해지듯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징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떨어진 포도주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시간을 앞당기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시간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에 잠잠히 있을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사 62,1).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사하신 카나의 혼인 잔치는 우리와 한 몸이 되도록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랑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나의 혼인 잔치는 성찬례를 통해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받아들이시어 성찬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혼인 잔치를 벌이시며, 성체성사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찬례는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느님이 전해지는 자리이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주님께로 붙어있는 한 몸(로마 12,5)이 되었음을 기억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처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며, 서로를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처럼,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또한 내어주는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주님께로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혼인 잔치이자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어가는 한 주를 보내도록 합시다.



이시몬 시몬 신부 | 사파동본당 1보좌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62,1-5
화 답 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리라.
제 2 독 서	1코린 12,4-11
복 음	요한 2,1-11

마음에 피는 작은 꽃들이 평화를 이루는 하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겨울이라 피지 않은 섬진강 꽃길을 따라 다다른 하동성당에서는 온통 꽃들을 만난다. 성전 입구 방에는 ‘작은 꽃방’이라고 적혀 있다. 유아실이다. 내려오면 참꽃방, 벚꽃방, 목련방, 철쭉방, 매화방이라고 회합실들을 예쁜 꽃 이름으로 정해 놓고 있다. 봄꽃축제로 명성을 날리는 하동지역답게 성당에도 방글방글 꽃들이 피어나는 듯하다. 신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꽃이름을 선정하고 목판에 정성껏 서각을 하여 방패를 달았단다.

서로를 마주한 진솔한 이야기들

이수호 다미아노 주임 신부를 비롯하여 김수태 바르톨로메오 사목회장, 김춘식 힐라리오 전 회장, 최문열 가브리엘 전 회장, 김정태 안토니오 사무장이 한자리에 앉았다. 하동성당의 역사와 현황을 꿰고 있는 전·현직 활동가들은 조용하면서도 무게를 담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고 공감하여 나눈다. 직전까지 미국에서 교포사목을 하다 새로 부임하여 거리두기 사회에서 겨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수호 신부는 신자들의 역사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최문열 가브리엘은 하동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30년이 되었다. 14대, 15대 회장을 맡아 본당 일에 밀착했다. 김춘식 힐라리오는 전남 진도에서 세례와 견진을 받고 고향 하동으로 돌아와 50년이 되었다. 내내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16대 회장을 맡아 역할을 다했다. 김정태 안토니오는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동으로 옮겨 왔다. 재경부장, 총무부장 등 사목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무장 업무를 맡아 17년이 되었다. 현 20대 회장 김수태 바르톨로메오는 사목위원들과 함께 앞서 일했던 분들을 본보기로 삼아 본당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형제로서 같은 일에 추임새를 넣으며 서로 고개를 끄덕거린다.

50여 년 잊지 못할 이야기들

하동본당은 196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1990년에 진교본당이 분리되어 나가고, 본당설립 25주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설계했다. 이듬해, 읍내 중심지에 새 성전 부지를 매입했다. 그 후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여러 가지 의견에 부딪쳐 쉽사리 진행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결국 성전 건립 방향에 대한 신자총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성전 신축이 아닌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성전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로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주일미사를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다. 오래 끌어왔던 새 성전의 꿈이기에 신자들은 기꺼이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한 여정에 동참했다. 성전 리모델링과 더불어 사제관과 수녀원 신축공사를 끝내고 2006년 5월 본당설립 40주년 기념 및 새 성전 봉헌미사를 거행했다. 이 기쁨을 누리며 가을에는 전체 신자들이 대구 한티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09년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하동성당 음악회’를 하동군예술회관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재능을 지닌 분들의 출연과 신자들의 단합으로 지역의 기관장들도 초대하여 문화예술에 희망을 더했다.





매입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성당 부지는 여러 과정을 거쳤다가 본당설립 50주년을 맞은 2015년에 교구로 명의이전을 완료했다. 그리고 <본당50년사 자료집>을 엮었다. 완벽한 책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남겨 둘 목적으로 A4용지 컬러로 11부를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하게 되었다. 가을에는 안명옥 주교와 많은 사제들의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하며 50주년을 축하했다. 이렇게 하동성당은 열심히 걸어, 이제 60년의 길을 향하고 있다.



‘우정과 영원한 사랑’ 이야기들

하동성당의 본당주보는 소화 테레사 성녀이다. 성전에 들어서면 제대 오른쪽에는 성모님, 왼쪽에는 테레사 성녀가 자리하고 있다. 소화, 즉 ‘작은 꽃’의 이미지가 이 본당의 분위기로 물씬 풍겨난다. 성모님의 ‘겸손’에다 성녀의 ‘작음’을 본받아, 대단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수하고 조용히 솔선수범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어떤 일이라도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아 나아간다. 그러다보니 낙후한 읍이라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이지만, 본당은 코로나 속에서도 톨톨 뭉쳐 한마음으로 극복하며 여전히 건재하다.



이수호 신부는 맡겨주신 신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한몫을 하려고 애쓴다. 여행하는 외부 사람이 많은 하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당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숙고했다. 무엇보다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미사 시간을 늘려 거리를 두어 마음 놓고 전례에 참여하게 한다. 사회현상에 위축되는 신자들을 위로하려고 부활대축일에는 전신자들에게 노란 장미를 선물했다. ‘우정과 영원한 사랑’이란 꽃말을 지닌 장미는 신자들의 마음속을 어루만졌다. 성모성월 행사도 네 번에 나누어 신자들에게 골고루 은혜의 시간이 되게 배려했다. 손 씻는 비누를 나누어 주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

50여 년 모든 사제들의 자리가 적재적소에 있었기에 하동 신자들의 믿음이 잘 영글어졌다고 이수호 신부는 말한다. 건물을 세우고, 재능을 살리는 자랑거리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진심인 신자들이 고맙다고 덧붙인다. 김수태 회장은 10월 1일 소화 테레사 성녀 축일을 전후로 열리는 본당의 날에 대해 소개한다. 3년을 단위로 하여 전체 신자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성지순례, 야유회를 번갈아 개최했었는데 지난해도 선물만 나누고 행사 없이 지나갔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 그런 기쁨의 날들이 오기를 고대한다.

2022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2022년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1월 4일 오후 2시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서품식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6명의 부제를 사제로, 3명의 신학생을 부제로 서품하였다. 이날 서품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이 제한되어, 신자들은 교구 유튜브 방송으로 새 사제와 부제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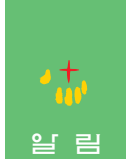




천주교마산교구 2022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주례 :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남하늘 엘리자오 신부 신승혁 요한 신부 임태근 모세 신부 계강준 요한 신부 김현 안드레아 신부 정병진 요셉 신부 김진현 프란치스코 장신영 요한 마리아
 이창범 라자로 부제 하비에르 부제 비안네 부제



기억할 선종 사제
이억민(바오로) 신부
1996년 1월 17일



교구장 동정

평협 정기총회 미사

일시: 1월 22일(토) 15:5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전국 사목국장 회의(화상회의)

일시: 1월 19일(수) 15:00

전국 성소국장 회의(화상회의)

일시: 1월 21일(금) 10:30

청소년분과위원장 및 주일학교 대표 교리교사 연수

일시: 마산·창원지구-1월 22일(토)
거제·진주지구-1월 23일(주일)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월 기도모임

일시: 1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1월 11일(화)~2월 9일(수)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이주배경 청소년
모집인원: 20명/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1·432·9241(전남 강진군)

효소단식힐링피정(3박 4일)

일시: 2월 3일~6일/ 2월 10일~13일/
2월 17일~20일/ 2월 24일~27일
참가비: 25만 원(개인효소포함)/ 정원: 11명
지도: 문봉한 신부(야고보술술마을원장)
영성 상담 가능
문의: 054·373·3955, 010·5878·9922

예수회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3월 개강)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내용: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구약성경 아가페마: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시편
·영신수련 정기강좌: 영신수련과 성서
·가톨릭 신앙과 영성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가톨릭ON(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내용: 김혜운 수녀(성경 본문 줄인 구세사-1,2편),
김영선 수녀(지혜여정: 역사서),
김효준 신부(바이블가이드: 성경입문가이드),
박형순 신부(지혜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pc와 모바일로 자유롭게 수강가능, 수시접수
문의: 010·3092·1108, 02·945·3300,
www.catholicon.co.kr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천포본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사랑과 정성, 기도 덕분에 잘 극복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임을 느끼게 되는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삼천포본당 신자 일동-

마산가톨릭농민회영농조합법인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 배송 및 물류 담당 1명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내부 규정에 따름) 후 채용 여부
근무지: 창원시 함안군 가야읍 묘사 1길 291-28
접수: 1월 17일(월)~27일(목) 17:00까지,
전자우편(kcfm055@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문의: 055·582·7010, 팩스-055·582·7009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면접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 010-5055-007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1. 24.(월)~26.(수)/ 2. 4.(금)~6.(주일)
2. 7.(월)~10.(목)/ 2. 14.(월)~16.(수)

■한국성지 167 완주
2. 21.(월)~24.(목) 수원·청주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마산
교구보배녀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좋은 일 하네예”

김미숙 까리따스 시인/ 가톨릭문인회

새해다. 이렇게 해가 바뀌면 뭔가 새롭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본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인들은 나를 보고 가끔 “좋은 일 하네예” 하면서 격려를 해 준다. 그런 말을 들으니 진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30여 년은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약간의 인지활동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어르신들의 특성 중 일부는 정상사고를 하며,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지만 또 일부는 “여가 어디고?”를 반복하며 자꾸만 밖으로 나가시려는 분. 인지는 좋아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휠체어에 의지하는 분, 종일 묵주를 들고 방에 앉아 기도만 하시는 분 등등 다양하다.

작년 여름 용팔 어르신이 입소하게 되었다. 어르신은 젊은 날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서 간부를 하던 분이다. 교통사고를 당해 신체의 절반은 쓰지 못하고, 나이는 65세로 젊은 편이지만 머리를 다쳐 정신연령은 여섯 살로 되돌아간 분이다. 게다가 그는 첫날부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절대로 빼지 않으려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 다니니 넘어질 것 같은 위험도 있어 보였다.

그림그리기 시간에는 크레파스를 쥐어주면 손에 힘이 없어 자꾸만 떨어뜨린다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용팔씨 케어에 대해 방법을 의논하다가 크레파스를 손가락에 고무줄로 묶어서 색칠공부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시도를 해 보았다.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고무줄로 묶은 크레파스로 동그라미 줄긋기만 두세 달을 반복했고, 용팔씨도 잘 따라주었다.

그런 어느 날 용팔씨가 나를 급하게 불렀다.

“누우야(누나) 이리 와봐라, 이거 내가 그렸다이, 봐봐, 여기 물고기도 산다. 헤헤” 하면서 그림 한 장을 들고 자랑을 한다. “참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 주며, 다음은 무엇을 그릴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용팔씨는 “음... 천사를 그릴 거다. 천사는 맨날맨날 좋은 일만 한다쿠대, 나처럼 손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우리 마누라가 그러대.”라면서 천사인지 새인지도 모를 날개를 그리고 있었다.

순간,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사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한다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좋은 일... 그렇다. 오늘 하루도 실수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면서도 찡그리지 않게 해 달라고 코로나19로 한참 못 뵈는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하게 힘을 돕 북 주소서” 하고.

의령사랑의집, 그림책 『여름에 비가 온다』 출간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의령사랑의집 지적장애인 여성 스무 명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여름에 비가 온다』를 출간하였다. 사랑의집 가족들이 직접 그림작가로 제작에 참여하였다.



• 책 구입 문의: 사랑의집 055·572·8101
E-메일: k5728101@hanmail.net

늘품직업재활센터 ‘늘품은견과’ 설날 선물세트 판매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장애인보호작업장 늘품직업재활센터는 이용 장애인분들의 출퇴근 훈련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일상생활 활동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일상적 독립을 위한 곳이다.

늘품직업재활센터에서는 ‘늘품은견과’라는 상호로 5가지 견과류를 25gx25봉지 구성으로 상자 포장, 답례품, 단품으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설날 선물세트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사전주문기간: 1월 19일(수)까지
문의: 055·247·5190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neulpum_net



못의 시대, 부드러움으로 맞선다-이승우의 『못』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못은 뾰족하고 날카롭다. 그렇듯이 이승우의 소설 『못』은 고통받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주인공 ‘나’는 다니던 잡지사가 강제 폐간되어 실직한 상태이다. 결핍하면 기도원에 가는 아내가 어느 날 예수 고난 주일이라고 집을 떠나자 그도 바다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월미도에 간다.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밧줄에 묶인 허약한 남자를 ‘우락부락’한 남자가 끌고 가는 것이다. 그 허약한 남자 즉 ‘흐물흐물’하는 남자는 발작을 하고 그가 끌려가듯 사라진 길에는 한 무리의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며 지나간다. 이 연극 같은 장면을 보면서 그는 두 그림이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숙박지인 여관에서 우연히 이 남자의 사연을 알게 된다. 그는 여관 주인인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장애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그런 그가 대학가 시위에 연루되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고 이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 혼자 쿵광거리며 군가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병자가 되어 있었다.

여관방에서 매춘부가 울면서 들려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그에게 어디선가 못 박는 소리, 그리고 옆 교회에서 부르는 고통스러운 찬송가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그 소리에 끌려 교회를 찾아간다.

무엇이든 경직되고 굳어지면 폭력이 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것도 오래 두면 딱딱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율법주의는 곧 굳어진 종교의 뿔과 같은 것이었고, 그 굳어진 종교의 눈에 예수의 말랑말랑한 사랑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딱딱한 것, 굳은 것이 사람을 해칩니다.

‘딱딱한 것과 싸우기 위해 딱딱해지지 말자’는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편안한 잠을 자게 된다. 같이 예배를 보던 신자들이 다 돌아갔을 무렵에야 잠에서 깬 그는 교회 옆 여관 앞에 모여 술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병자로 돌아온 그 청년이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것이다. 내가 밤에 들었던 못 박는 소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관집 위층에서 난 소리였던 것이다. 청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소리와 예수가 못 박히는 수난의 고통을 노래하는 찬송가를 ‘나’는 동시에 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못의 시대를 사는 종교는, 현실의 위험을 피해 대피해 온 방주가 아니라, 그 현실의 날에 깔려 쓰러진 여러 예수들이 부활을 기다리며 누워 있는 무덤 속이라고 새롭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만이 못의 뾰족함을 둔화시킬 겁니다.

생각과 말이 점점 뾰족해지는 못의 시대,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결국 똑같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못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부드러움이다. 청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예수가 함께하였듯이 절대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부드러움으로 서로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